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1호 【루게 제24704호】 주제 103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칙의 신념을 간직하고 인민보안부 군관 박철홍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빛내는데 순결한 맘을 바치셨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열의 밑에 평양시상수도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유영순은 20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장산혁명사적지 보존

관리사업에 충정을 바치셨다. 과학자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동래대의 건설자양생사업소 통역원 김충혁은 위성과학자주책지구 건설자들에게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셨으며 대외건설지도국 로동자 김성순도 공사를 성실성으로 도왔다.

자강도검찰소의 일군들은 도안의 여러 철다리를 훌륭히 개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도와나섬으로써 나라의 철도수송사업과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셨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정은실은 특류영예군인을 정성껏 돌봐주는 과정에 그와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하고 한가정을 이루었으며 박천군 상양협동농장 농장원 계광철도 군사부문의 나날을 값높이 빛내인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청춘도 사랑도 다 바치셨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은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태양의 위업을 길이 빛내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통일로써야 당 연해변강지부와 웰남 조선친선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통일로써야 당 연해변강지부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통일로써야 당 연해변강지부대표단 단장인 류도필과 딸라바에바 지역정치리사회 비서가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성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웰남조선친선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웰남조선친선협회대표단 단장인 정 두인 동 부위원장인 16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조선로동당 뜻깊은 10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이란, 말레이시아, 기네, 앙골라에서 경축집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서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 각각께서 이끌어오신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 못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말레이시아 전진무역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 당이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 김정일 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

로동당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당이다.

장구한 기간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당은 이 세상에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 각각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압살책으로 나라가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던 지난 세기말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 각하를 제1비서로 높이 모시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기네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김정일 각각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업적을 격찬하였다.

앙골라 마프코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된 비결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각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

김정은 각각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정치를 펼치시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당창건 69돐에 즈음

하여 로므니아사회주의선량당, 인도네시아 유니도 아지드하르마공의회사, 인도네시아 페알 인두스트리 머신회사, 싱가포르 오씨엔무역사인유한공사, 앙골라 마프코사, 앙골라 엠브로에총회사에서 2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도네시아 유니도 아지드하르마 공의회사 사장은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하는 소중한 이름으로 부르다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적부리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조선에서는 당의 믿음속에 평범한 사람들도 시대의 선구자로, 영웅으로 지나나 참된 삶을 꽃피워가고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동지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것이 행복으로 간주되고있다.

인도네시아 페알 인두스트리 머신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당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어시였다.

김정일 각각의 명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본사기자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안아온 자랑찬 창조물 위성 과학자 주책 지구 준공식 진행

【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위성과학자주책지구에 현대적인 위성과학자주책지구가 일떠섰다.

위성과학자주책지구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이 땅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인재중시정책이 안아온 위대한 창조물이다.

24개 호동의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과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공공건물, 공원들이 종합적으로 꾸러진 주책지구는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려리성, 선미학성을 철저히 구현한 새 세계 주책지구건설의 본보기이다.

아담한 살림집들마다에 현대적인 가구들은 물론 리발과 온실까지 일일치 갖추어진 위성과학자주책지구건설이 완공됨으로써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연구사업에 전념하면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위성과학자주책지구 준공식이 17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새 세계 산업혁명의 개척자로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전열에 내세워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부강조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준공식에는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부 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판계부문, 국가과학원 일군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인들, 근로자들, 새 살림집에 입주할 과학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건설의 대변영기로 흥하는 울레를 빛나게 장식하며 은성 과학자주책지구에 웅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과학자주책지구 일떠선것은 온 나라의 크나큰 경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성과학자주책지구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이 그대로 터전이 되고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어머니당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주추들이 되어 솟아오른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이 그러는 설계도우에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며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드립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올해 정초 국가과학원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주책지구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였으며 그 건설부지도 정해주시였다.

과학자주책지구건설을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선물로 안겨줄수 있게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한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현장을 몸소 찾으시여 공사를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낼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였으며 주책지구가 훌륭히 완공되었을 때에는 《위성과학자주책지구》라고 뜻깊은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얼마전에는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책지구 현지지도하시면서 앞으로 은성 과학자주책지구 위성과학자주책지구와 같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더 건설하여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전변시키도록 은성같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우리 당의 품은 과학자들을 부강

조국건설에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로 높이 내세워주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안겨주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근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과학자들을 나라의 보배로 여기시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위성과학자주책지구는 인민군대가 주동이 되고 핵심이 되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안아온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의 숭고한 뜻을 피뎌는 심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지난 3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일당백공적속도, 단숨에의 정신으로 낮에 밤을 이어가며 결사전을 벌려 불과 7개월동안에 방대한 규모의 새 주책지구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당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기간에 위성과학자주책지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한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위훈은 강성국가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기술성파로 부강조국건설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연설자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현대적인 살림집과 훌륭한 연구조건을 마련해준 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높은 과학기술성파로 보답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볼타는 애국충정과 진취적인 태도,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두뇌진, 실력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침착준엄한 과학연구구상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으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에서 제시하신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건설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학신을 일으켜 위성과학자주책지구와 같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울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성과학자주책지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시설의 편리한 영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은 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을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과학자들에게 더 뜨겁게 미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따라 승리의 신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지난 3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일당백공적속도, 단숨에의 정신으로 낮에 밤을 이어가며 결사전을 벌려 불과 7개월동안에 방대한 규모의 새 주책지구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건설에 참가한 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늘고 선 준공예를 과학자, 건설재도들이 끊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책지구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영원히 전해갈 애국의 당부

리보익녀사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애국, 애족, 애민은 만경대 가문의 가풍이다.
만경대혁명가분들의 생애는 바로 그 숭고한 것으로 줄기차게 관통되어 빛나는 것이다.
오늘은 열렬한 애국자이신 리보익녀사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56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력사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모습을 남긴 리보익녀사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 밖에 모르고 살아온 촌놈들이었지 만 진정을 말하건대 나는 그분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에 탄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교훈을 받았다.
말이 쉽지 자식들을 키워 고스란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것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식들의 뒤를 꾸준히 받쳐준다느니 하는 한두번의 전두나 몇년간의 감옥살이에 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리보익녀사의 고결한 생애는 만경대일가의 혁명투쟁사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한다.
돌이켜보면 리보익녀사께서는 직업적인 혁명가는 아니시었다.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었고 조직적인 혁명교양을 받으신 일도 없었다.
1876년 5월 31일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신 리보익녀사께서는 한생만경대일가분들을 혁명의 길에 내세우

시며 온갖 고생이던 고생을 다 하시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긍지로 간주하시었다.
그것은 리보익녀사께서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나라와 백성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체득하고계시 었기때문이었다.
하기에 녀사께서는 언제나 자제분들에게 대가 바르고 공제에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 시였으며 아드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고 먹고 팔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의 혁명 투쟁을 적극 도와주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 하고서 즐거운 투쟁을 벌리실 때에도,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어 철창속에 불 굴의 투쟁을 벌리실 때에도 녀사께서는 아드님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뒤바 라지를 고스란히 해주셨었다.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신 리보익녀사시였기에 손자분들을 곁에 두고싶으신 마음 간절 하시였건만 대를 이어 혁명의 길로 떠밀 어주시었다.
그 어떤 강권이나 불의앞에서도 휘 어 들지 않는 강한 신념과 절개, 그것은 리보익녀사의 고결한 친품이었다.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보익녀사를 추억하신 회고록 《세기 와 더불어》의 글줄들이 어려웠다.
우리 할머니의 투쟁은 한마디로 강의 한 늪이라고 표현할수 있을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나이의 녀성들치고 보기 드 문 강자였습시다. 가난하고 불행하고 선 망한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상냥하고

부드럽지만 사람잡지 않은자들에게는 추 상같은것이 우리 할머니입니다. ...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일제의 《귀순공작》이 바로 그러하였다. 한차례도 아닌 두차례, 그것마저 어떤 때에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일제의 《귀순공작》. 그러나 리보익녀사께서는 그 어떤 강권이나 위협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었다.
놈들은 리보익녀사를 일러두고 보고 위협도 하였지만 그것은 괜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이나 돈으로는 만경대집안 사람들을 움직일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적들은 강제로 리보익녀사를 끌어내어 만주로 데리고 떠났다. 녀사께서는 좋다, 너희들이 억지로 날 데리고가겠거 나, 그렇다고 너희들을 도와줄줄 아느냐, 그대신 나는 내대로 이 기회에 손자가 싸우고있는 백두산과 만주의 산천이나 실컷 돌아보았으니 어 누가 이기나 보자고 당당히 맞서시었다.
그후 일제의 강요로 다시 만주땅을 밟으시였을 때에도 리보익녀사께서는 항 일유격대가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소 식을 전해들으실 때면 《내 손자가 작 사하시었다! 이서 애들을 다 잡아치우고 우리 나라 땅에서 왜놈들의 씨를 말려라!》 라고 기세를 올리곤 하시었다.
놈들이 산물을 해마다가 위협하며 손자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였을 때마다 녀사께서는 나는 그런 미친 소리는 할줄 모른다, 내놈들이 나를 죽이고 무사할줄 아느냐, 우리 손자의 총알을 받고싶거든 어디 내놈들 하고싶은대로 해봐라 하고 호령을 치곤 하시었다.
서리발치는 녀사의 기상앞에서 원수 들은 전멸하였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설명절때 독찰관이라는 놈이 투무 들에게 김장군 할머니에게서 설인사를 받고싶었는데 그 늪은이더러 와서 세배를 하게 하라고 호령하시었다.
독찰관의 말을 전 달 받은 리보익녀사께서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세상에 벌소될 다 듣는구나, 버릇없는 놈! 그놈더러 와서 김장군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라구 해라! 하고 불호령을 내리시었다. 독찰관은 그 말을 듣고 어 제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손에 들고있던 술잔까지 떨어뜨리었다. 그놈은 수틀리 면 흥기부터 뿜아내고 상대방이 잘못했 다고 빌 때까지 야료를 부리는 독종이었 는데 그날만큼 기가 짝이여 아무 행패질 도 못하고 파시 김장군의 할머니가 다르 긴 다르다고, 손자가 백두산의 호랑이라 더니 그도 역시 호랑이가 틀림없다고 하 며 더는 어쩌지 못하시었다.
이처럼 리보익녀사께서는 총 한자루 없는 로인의 품으로 적들과 맞서싸워 이 기시였던 것이다.
놈들의 온갖 위유와 박해속에서도 굴 함없이 혁명적절개를 지켜주시었던것으 로도 녀사께서는 해방후 호강하게 살수 있었다. 하지만 녀사께서는 손자분들 나래의 수령으로 모시고서도 오직 절 절한 혁명정신으로 그이의 사명을 도와 생의 말년까지 능사업을 계속하시었다.
참으로 리보익녀사께서 우리 혁명의 길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나고있으며 녀사께서 지니셨던 견결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품모와 덕성은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귀감으로 우리 인 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다.
전 광 남

고치할 지침, 생활의 진리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실력을 요구한다. 이러한데로 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상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실력에 대하여 강조하고계신다.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실력이 없이는 한결같은 진진할 수 없으며 혁명에 이바지할 수 없다는것이 오늘의 현실 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경 험 하나만 가지고 일할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 시면서 이것이 적고 능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나 독특한 방법론 과 과학적지식이 없이 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 었었다.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일군들이 실력이 없으면 자

단위앞에 나선 혁명사업 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난관앞에 동요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아는것이 적고 능력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가를 깨우쳐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으로 새겨안았다.
리들은 최고사령관의 작전 적기도에 장단을 맞추어 싸 움을 전개해나가는 작전정 술적지략이라는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생활에서의 리 들이란 어떤것인가를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 활에서의 리들도 마찬가지로 라고 하시면서 생활에서의 리들이란 대중과 호흡을 맞 출출하는 감정정서를 의미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그 러시면서 일군들이 생활하

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정신 적힘은 한계가 없습시다 라고 말씀하시었다.
혁명가의 힘에 대한 철학 적인 말씀이었다.
절세위인의 명인은 일군들 로 하여금 혁명사업에 대한 헌신의 의지를 백배로 가다 들게 하였다.
본사기자 박 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조국건설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는 참관자들
-개선문화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실효를 거둔 연구발표모임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는 《.》결성 88년을 맞으며 당원들과 탄부들속에서 우리 당의 뿌리를 마련하시고 조신혁명의 시련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리 었다.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 와 더불어》 제1권에 수록되 어있는 《다도제국주의동맹》 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 였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가 있어 우리 당의 강령이 태어나고 우리 당건설 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되었으 며 우리 혁명이 자주성의 원칙 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 게 되었다고 하면서 10대의 어 린이 나이에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수령님이시

기 빼 하 신 사 연

그러한 후 췌물들은 삼복의 무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 으시고 잠시의 휴식도 없이 기 업소의 오리목장을 찾으시 었었다.
그날은 목장주내, 시원스레 뻗어간 푸른내로, 푸르른 가 로수들, 식료공장을 방불케 하는 먹이공공장, 산뜻한 먹이 저장소, 물놀이장을 꼭 채 우며 유유히 흐르는 하얀 오리 래...
이 호젓한 전경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말 믿 었 있는 풍경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목 장의 오리고기생산능력과 공급정형 등 운영실태를 하나 하나 료해하시었다. 목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쾌 람하다고 거듭 치하의 말씀을 하시며 오리고기를 매달 얼마

씩 공급하는가고 물으 시 었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로동자들에게 차례 지는 오리고기의 공급량에 대 하여 보고드리면서 기업소에 다니는 시구가 많은 세대들에 서는 고기가 많이 차례될 때 있다고 자랑삼아 말씀드리 었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이 고기 가 많이 먹고 있는것은 좋은 일 이라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잘 먹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온 목장 이 밝아져 행복하 웃으시었다.
인민의 행복이 더없는 기쁨 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 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 었다.
일군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부업농장에서의 먹이생산정형 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실리에 맞게 일하는것이라 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부업지능사와 축산을 잘하면 종업원들의 식생활수준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날 목장의 먹이공공장도 종합공장을 거쳐 단면먹이발 효장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는 이런 좋은 경험을 모든 부업에 서 다 따라배우게 해야 하겠 다고 하시면서 오리기르기를 잘하고있는것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일군들이 후방사업 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 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로동자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 이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이 책임일군들이 합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잘하고있는데 기특하다고 거듭 치하해주시 었었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었다.
후방사업을 잘하는것은 곧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중요한 투쟁이며 우리 장군님의 최대의 기대는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 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있을 것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신 불멸의 업적

태 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성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 게 맥박치는 로작은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 을 굳건히 고수하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주체의 한결같은 줄기차게 전진하여 올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평도가 있 어있기때문이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이 땅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로 작이 변함없이 흐르도록 온갖 로작을 다 마치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만년제이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게 해질하신데이다.
혁명의 수령은 조국과 혁명, 사회 주의의 승리의 상징이며 인민의 마음의 기둥이다. 혁명을 개척한 수령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데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가 있고 최대의 충성이 있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최대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뜻곳이

어느때보다도 확확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사장에서 맘이 흐르는것도 아 랑곳하지 않으시고 조리대우에 주관이 놓인 갖가지 남새와 반 찬감들, 시루마디에서 자라는 콩나물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 었었다.
학생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을수있도록 기쁨을 금치 못하 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위사장전경을 둘러다보시며 그 주방이 너무 크지 않은가고 물으 시었다.
주방이 넓고 통풍도 잘되어 마 시우려 취사원들이 일할 때 시 원하겠다고 생각하였던 학교 일군들은 뜻밖의 물음속에 어리 동정하였었다.
영문을 알지 못해지는 그들에 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방 이 커서일이 땅비되었다고 말 품 하시었다.그때에 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겨울철의 취사준비도를 두고 격정하신

여름에 걱정하신 겨울추위

다는것을 깨달은 학교의 일군 는 장군님께 보이로라 겨울에 난방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리 었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놓 이지 않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대 도 겨울에 추웠다고 하시면 서 취사장은도 낮으면 겨울철에 취사원들이 일하기 힘들고 해놓은 음식들도 인 식식기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었다.
무더운 여름철에 벌써 취사원 들이 겨울에 추위할새라, 학생 들에게 찬음식을 먹일새라 걱정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메일과 같이 취사장을 돌아 보면서라도 과연 어는 일군이 이런 걱정을 해본 일이 있었 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겨울이시 는 다심한 사랑은 정녕 끝이 없 으시었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더없이 후두워웠다.
본사기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창조 방식, 언제나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혼연일체의 대화원을 가꾸어 오신 장군님의 숭고한 인격적치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방식 그대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께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하는 법, 창조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신념의 비약과 혁신이 련일 이루어지고 나. 이 모든 기적적인 성과를 얻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평도를 떠나 수 각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 평도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지니시였던 고결한 인성판과 혁명적정품모체 를 따라갔으며 경애하는 원수님들께 계 시어 끝없이 강성번영 하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확신에 넘쳐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의 숭고한 귀감을 창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모든 사업을 철두철 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해오신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우 리는 수령님께서 생년계절 때처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모든 사업을 철두철 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으로 해오신데이다.
충실했는 전진시찰과 현지지도강 행군길을 이어가시며 반제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해 오고 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 제기 있어본적이 없는 강성국가건설 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안아온 자랑찬 창조물

위성 과학자 주택 지구 준공식 진행



이런 당사상 일군이 있어 조국이 강하다

길주군당위원회 선전비서였던 진정관동무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시대에는 영웅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수형결사용위의 선전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된 폭발물처리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위기일발의 순간에 동지를 위해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광부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우리의 주인공 진정관동무에게는 그렇듯 장렬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너무도 조용히, 마치 잠깐 졸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또다시 다정히 일깨워주고 귀중한 조언도 줄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동지들의 곁을 떠났을뿐이다.

그러나 길주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잊지

못했다. 포전에 나서도 《그때 선전비서 동지가 여기에서...》라는 뜨거운 추억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마을의 학교에 들려도 《우리 선전비서동진 정말...》하며 저도 동지를 위해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광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경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했어도 결코 평범하게만 여길수 없는 진정관동무의 영의 자유자유의를 더듬어보며 우리는 인민의 사랑하며 따르는 당일군,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당사상일군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허는 일과였다. 이른 새벽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남만저 돌아보고 출근길에 올랐고 깊은 밤 또다시 이곳을 찾아 정중성보장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곤 하였다.

일년 열두달 변함없는 호위전사의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바쳐가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체질화된 충실성이란 어떤것인가를 가르쳐주었다.

그가 동상방범대의 자그마한 흠을 남만저 발견하고 멀리 떨어진 평안에서 가서 직접 착안도 하고 가동도 하면서 리 한점 없이 깨끗한 화강석을 다시 마련해올수 있었던것은 그의 고결한 충정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진정관동무는 자기의 행세를 돌이켜볼 때마다 늘 죄책감에 휩싸이곤 했다.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은 하늘같은데 보답의 자족은 너무도 작아 자신을 부끄러워할까 두려웠다.

그가 조선노동당 제 8차 당사일군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짙은 파랑의 기생사건을 받아안은것은 병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였다.

해빛이 밝게 비쳐드는 벽면에 정중히 모신 기생사건을 우러르며 그는 안해 최기숙동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원수님을 받들어 한번 본래 있게 일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자나 가슴이 미어지누만.》

그의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남편의 심정을 최기숙동무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은 태양과 같은분이라고, 그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을 비유는 순간같이 막 웃구치마라고 격정을 터치던 남편의 모습을 잊을수 없었다.

머칠후부터 진정관동무는 자주 혼수상태에 빠지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의식을 잃었던 진정관동무가 눈을 떴다. 자기를 근심스럽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보이던 진정관동무는 불현듯 전화를 찾았다.

잠시후 수화기에서는 군당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수화기에는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화를 모시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토의하던 진정관동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이 점점 굳어지는감을 느꼈다. 한마디 한마디를 잇기까지 무척 힘들었지만 생각되는바를 끝까지 다시금 절절히 당부했다.》

《...책임비서동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밝게 모셔 주십시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을 무겁게 안던 천근추를 내려놓은듯 퍼그나 평온한 안색이었다.

히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모습일줄 어이 알았을까.

단풍은 지는 순간에 가장 붉게 탄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생의 마지막을 굶은이 장식한 진정관동무의 최후는 그대로 그의 인생의 정경이었고 고귀한 초화였다.

그의 심장은 고통을 멈추었다. 그러나 수령의 진사는 행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는 당사상일군의 뜨거운 심정의 박동소리는 꺼지지 않았다. 인민의 가슴속에서 함께 고동치고 있는것이다.

안되던 때 진정관동무는 전국당선일군급 사대에 망라되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삼지연대기념비에 이른 그는 《전적지의 나팔수》앞에서 오래도록 곁을 옮기지 못하였다.

그것은 분명 당사상일군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그날에 가슴깊이 새긴 《전적지의 나팔수》는 당사상일군으로서의 그의 행세를 관통하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나팔수가 되자라 무엇이든 아는것이 많아야 했다. 실력의 높이지자 나팔소리의 위력있었다.

그는 손에 책을 놓을줄 몰랐다. 출장길에서라도 책을 번지였고 매일 밤 책을 읽고서야 잠자리에 드는것을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삼았다.

그는 결세위원들의 로작들과 당정책을 학습하는데 첫머리는 힘을 넣었다. 당문헌들을 한번 읽어보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밑줄을 그어가며 연구발췌하고 그 진수를 파악하기 위해 탐구를 거듭했다.

진정관동무는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피라게 노력했다.

그의 책상우에는 정치도서는 물론 농산, 축산, 건설, 기계 등 여러 부분의 기술서적들과 소설책들도 놓여있었다.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에는 길주군의 지리적위치와 인구수로부터 날은 몇몇보고도 길주군에 이르러오면 도로배치는 어떻게 되어있는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것으로 적혀있었다.

역시 이것은 힘이였다.

진정관동무는 파수원에 가면 처녀들에게 가지자라는 방법도 가르쳐주었고 건설장에 가면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시공방법들도 펴주었다. 그것은 그대로 과학기술학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 말없는 선동으로 되었다.

언제인가 이런 일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방범팀로 쓸 화강석을 어느 한 길가공공까지 시급히 운반해야 할과제가 나왔다.

집재같은 화강석의 무게를 가늠할수 없던 모두를 안타까와했다. 그것을 알아야 알맞은 자재장사를 쓸수 있었단것이다.

안전하게 대형화물자동차를 쓰자나 그렇게 큰 자동차를 얻는것이 난감했다.

《상황을 전담하는 진정관동무는 즉석에서 대담 방도를 내놓았다. 화강석의 비중이 얼마인지 가로와 세로, 높이를 재어 중량을 계산해보라는것이였다.

무렵에도 큰 차를 얻으려고 뛰여다니던 일군들은 군당 선전비서까지 화강석의 비중까지 알고있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운반작업은 군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로 진행되었다.

진정관동무는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는 학생문학소조지도사업에 주의를 돌리었다. 그의 지도는 정책적지도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지도이기도 했다.

언제인가 문학소조원들이 지은 동시를 보여주던 그는 소조지도교원에게 어느 한 표현이 동시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어감을 두고 이야기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자 동시의 양상이 어두워진다. 《다들다들》같은 표현을 썼더라면 콩이 달리는 모양을 아담스럽게 맞게 표현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을 주었다.

순간 소조지도교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선전비서동진 문학이 전문입니까?》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내용적으로는 물론 띄어쓰기, 토와 같은 어학적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적해주는 진정관동무앞에서는 소조지도교원도 늘 선생앞에 선 학생의 심정이었다고 고백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았다.

진정관동무의 전두지지는 언제나 사무실이 아니라 들끓는 전투장이었고 현실 속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천성적으로 선전일군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천성이 전에 높은 책임감에 기초한 피라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진정관동무에게는 언제나 거울처럼 안고 사는 모습이 있었다.

길주군당위원회 선전비서로 배치된지 얼마

이 나오고 《무엇하러 나왔소?》라고 물으면 《당정책을 해설하러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것이 가장 리상적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기며 멀고 험한 길도 웃으며 걸었다.

몇해전 모내기철이었다.

백련리에 내려간 진정관동무는 제 4작업반의 모내기실적이 제일 뒤떨어졌다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방충선전차를 타고 지체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진정관동무는 직접 마이크를 틀어잡았다.

《동무들! 지금 이 시각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십니다. 그이의 발걸음을 제일 먼저 따라야 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명도적적단위인 여기 백련리의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마디마디에 진심이 흘러넘치는 그의 호소는 농장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한적하던 전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

라졌다. 모내기경쟁도표의 붉은 줄이 쪽쪽 뻗어올랐다.

진정관동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화신식정지사업의 위력을 절감하는 순간이었고 당사상일군의 긍지와 보람을 뿌듯이 느끼는 시각이었다.

지금도 그의 목소리는 길주 땅 어디에나 울리고있다.

가을결이전투장에는 농장원들과 어울려 즐겁게 터치던 그의 유정한 웃음소리가 그대로 울리고있고 아이들이 랑랑히 울는 시에도 그가 심어준 참된 뜻이 맥박치고 있다. 방대한 과업앞에 가슴 벅찬할 때면 힘을 내라고 고무하는 어제의 당사상일군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대중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군당일군들의 권위에도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옛 선전비서의 당부가 메아리친다.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대중을 당정책관찰에 부르던 진정관동무의 호소는 나팔소리는 전진하는 데오에 활력을 주며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꺼 지지 않는 박동

그의 생은 마지막시각을 향해 거침없이 육박하고있었다.

배를 그려내재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는 진정관동무의 이마에 진땀이 뺨뺨뺨 내뿜었다. 가느다란 신음이 입귀를 타고 흘러내렸다.

《비서동지, 이렇게 고열이 나는 몸으로 길을 떠났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길주군제 1인민병원 과장 강철호동무는 안타까운 어조로 진정관동무에게 말하였다.

《동무야 내 병을 잘 알지 않소. 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어서...》하며 진정관동무는 앞서 곁을 내짚었다.

그의 고집스러운 성미를 잘 아는지라 강철호동무는 더 말릴념을 못하고 따라갔다.

진정관동무가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두달전이었다.

중앙병원에서 두번째 수술을 받은지 몇개월이 되던 그날 아침 진정관동무는 불현듯 자를 채고 일어났다. 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화를 모시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방조할오리 아무래도 만수대창작사에 다녀와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겨우 50m나 전진했을까. ...

진정관동무는 또다시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름을 찬바라 온몸이 땀주머니가 된 그를 지켜보는 강철호동무의 눈앞에는 잊을수 없는 모습이 얼결히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결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곱들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라는 일군. 이것이 우리 당이 바라는 선전일군의 모습입니다.》

그때에도 이런 모습을 보았었다.

몇해전 여름날 점심시간이 끝나자 지났을무렵, 걸진을 마치고 돌아온 강철호동무의 일행은 철길을 살펴며 지평에 의지하여 힘겹게 걸어오는 한사람을 보게 되었다. 진정관동무였다.

온몸이 땀으로 미역을 감은듯 했다. 그것이 무더위때문만이 아니라라는것을 의사들은 대충 직감하였다. 바로 얼마전에 병원에서 퇴원한 것이었다.

알고보니 진정관동무는 길주전년역에서 온수정역까지의 철길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중이었다.

《진강도 좋지 못하네 이런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 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어린 어조로 묻는 의사들에게 진정관동무는 말하였다.

《이 두들기 레도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길과 맞닿아있소. 언제나 저 위대한 장군님을 잘 모실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것은 선전비서이기 전에 당원인 나의 의무요.》

...

그때 받았던 강렬한 충격이 다시금 강철호동무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때, 달리는 살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속으로 뇌이며 강철호동무는 진정관동무를 힘껏 추측했다.

그러므로 며칠후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립진전장을 돌아보시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진정관동무는 지체없이 건설장으로 향하였다.

골조공사중이어서 그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는 건설장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미어졌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런 곳에 오시디나. 이렇게 힘한 곳에...》

그는 눈언저리가 불길해지더니 눈물이 핑그르르 고여올랐다. 여기에 와보니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겠는가 하는 자각이 든다고 동행한 의사에겐 절절히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쉼이없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제 남은 삶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생을 분분초초로 조개하며 일하지, 이런 결심을 안고 그는 부랴부랴 평양을 떠났다.

군에 들어서는 길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화를 모시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부터 찾은 진정관동무는 공사진척정형을 료해하였다. 이어 새로 꾸리려고있는 군혁명사적물보존실에 둘러 범치로기간 해당 기관에 여러번 결을 하면서 고중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사적물전시를 볼데도 교양적의가 있게 하기 위한 방도도 내놓았다.

그렇게 낮이 흐르고 밤이 바뀌었다.

7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진정관동무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다. 그의 불같은 각오와 열정에 도전하듯 야속하게도 급속도로 악화되어갔다.

의사들은 진정관동무에게 다시 중앙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권고하였다.

《태양상모자이크화를 모시기 위한 전투가 한창인 때에 이 선전비서까지 자리를 떠야 되겠소? 동무들이 어떻게 해서나 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모실고날까지만 내 생명을 좀 연장해주오. 부탁이요!》

그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그때처럼 생명의 귀중함을 느껴보기는 처음인듯싶었다. 결코 생의 종착점을 바라보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성때문은 아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전사의 비장한 자각때문이었다. 바로 그래서 병원입상에서 일어나려 전투장에서 삶의 연장을 그렇듯 피라게 호소한 진정관동무였다.

누가 노대했는가. 생이란 마지막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날날이라고. 최후의 시각에 행세를 후회없이 돌이켜볼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참된 삶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다.

진정관동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수형을 받드는 길에서 자그마한 항성의 리도 없었던 그의 백옥같은 초창의 인생에는 참으로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새겨져있다.

길주군공급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매일 찾는것은 진정관동무가 군당 선전비서로 배치되어온 날부터 스스로 굳

진격의 나팔수로 살리!

국제국내정세도 개괄해주고 때로는 배를 그려주게 하는 유모야도 들려주었다. 듣고 나면 누구나 선전비서가 왜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곤 했다. 그만큼 그의 한마디한마디는 어느것이나 다 정치사업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천성적으로 선전일군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천성이 전에 높은 책임감에 기초한 피라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진정관동무에게는 언제나 거울처럼 안고 사는 모습이 있었다.

길주군당위원회 선전비서로 배치된지 얼마

이 나오고 《무엇하러 나왔소?》라고 물으면 《당정책을 해설하러 나왔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이것이 가장 리상적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기며 멀고 험한 길도 웃으며 걸었다.

몇해전 모내기철이었다.

백련리에 내려간 진정관동무는 제 4작업반의 모내기실적이 제일 뒤떨어졌다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방충선전차를 타고 지체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진정관동무는 직접 마이크를 틀어잡았다.

《동무들! 지금 이 시각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십니다. 그이의 발걸음을 제일 먼저 따라야 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명도적적단위인 여기 백련리의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마디마디에 진심이 흘러넘치는 그의 호소는 농장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한적하던 전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

라졌다. 모내기경쟁도표의 붉은 줄이 쪽쪽 뻗어올랐다.

진정관동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화신식정지사업의 위력을 절감하는 순간이었고 당사상일군의 긍지와 보람을 뿌듯이 느끼는 시각이었다.

지금도 그의 목소리는 길주 땅 어디에나 울리고있다.

가을결이전투장에는 농장원들과 어울려 즐겁게 터치던 그의 유정한 웃음소리가 그대로 울리고있고 아이들이 랑랑히 울는 시에도 그가 심어준 참된 뜻이 맥박치고 있다. 방대한 과업앞에 가슴 벅찬할 때면 힘을 내라고 고무하는 어제의 당사상일군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대중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군당일군들의 권위에도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야 한다는 옛 선전비서의 당부가 메아리친다.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대중을 당정책관찰에 부르던 진정관동무의 호소는 나팔소리는 전진하는 데오에 활력을 주며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사육을 모르고 청렴결백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곤 했다.

언제인가 건설장에서 밤늦게 들어온 진정관동무에게 딸들이 음식을 부려주지 않더라.

《아 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부엌에 고운 타일을 붙이지요.》

《굴뚝이 메서 어머니가 고생해요.》

진정관동무는 정색한 어조로 타일렀다.

《당일군가족이 세손으로 집수려도 못해서 어찌 되었지?》

아버지의 등뒤에 매달렸던 아이들이 뽀로통해서 들어왔다.

사실 그 책망은 자기자신에 대한 질책이기도 했다. 집살림을 통채로 떠맡고있는 안해에게 늘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도 거를이 없어 집을 돌보지 못하는것이 죄스러웠다. (여보, 이번 공사만 끝났면 꼭 내 손으로 굴뚝도 수리해주고 부엌도 멋지게 꾸려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속약속을 그는 끝내 지키지 못하였다.

막대한 미충이가 진정관동무에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우리 동무네 아버지 영웅이 되었대요. 아버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일밖에 모른대 왜 영웅이 못되나요?》

한동안 그는 생각을 잠겨있던 진정관동무는 나직이 말하였다.

《당일군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밑거름이란다.》

인간은 인간다운것에 반한다. 결코 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은 불같이 뜨거우며 여기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진정관동무의 인간적매력이 있는것이다.

인민들이 스투럼없이 부르던 《우리 선전비서》.

그 부름은 인간 진정관에게 인신 안전준 가장 고귀한 표창이었다.

※ ※ ※

하나의 물방울은 온 우주가 비긴다. 평범한 군당 선전비서의 행세를 통하여 우리는 당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일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실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미를 체현한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당사상일군들의 참모습을 본다.

그렇다. 위대한 시대가 낳은 이렇듯 훌륭한 당사상일군들이 우리의 정치사상전진을 지고있기에 조국이 강하고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방문단성원들은 흥원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

【조선중앙통신】

기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

【조선중앙통신】

나. 명절날과 저의 생일날에도 그들 가족은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들의 진정이 담긴 문화용품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었습니다.

올해 삼복철이 오자 김순근, 김정순 부부와 그의 아들 김지환 그리고 김순근동무와 함께 일하는 최학경동무가 저를 동림폭포로 데리고와서 시원한 덕수까지 맞게 하여주었습니다.

서늘한 덕수에서 들어왔으니 삼복의 무더위는 순간에 가서졌지만 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저의 생활은 이처럼 따뜻한 혈육의 정이 항상 넘쳐나옵니다.

신외주사 성남동 박정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방문단성원들은 흥원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

【조선중앙통신】

기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

【조선중앙통신】

나. 명절날과 저의 생일날에도 그들 가족은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들의 진정이 담긴 문화용품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었습니다.

올해 삼복철이 오자 김순근, 김정순 부부와 그의 아들 김지환 그리고 김순근동무와 함께 일하는 최학경동무가 저를 동림폭포로 데리고와서 시원한 덕수까지 맞게 하여주었습니다.

서늘한 덕수에서 들어왔으니 삼복의 무더위는 순간에 가서졌지만 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저의 생활은 이처럼 따뜻한 혈육의 정이 항상 넘쳐나옵니다.

신외주사 성남동 박정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방문단성원들은 흥원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

【조선중앙통신】

기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

【조선중앙통신】

나. 명절날과 저의 생일날에도 그들 가족은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들의 진정이 담긴 문화용품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었습니다.

올해 삼복철이 오자 김순근, 김정순 부부와 그의 아들 김지환 그리고 김순근동무와 함께 일하는 최학경동무가 저를 동림폭포로 데리고와서 시원한 덕수까지 맞게 하여주었습니다.

서늘한 덕수에서 들어왔으니 삼복의 무더위는 순간에 가서졌지만 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저의 생활은 이처럼 따뜻한 혈육의 정이 항상 넘쳐나옵니다.

신외주사 성남동 박정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방문단성원들은 흥원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

【조선중앙통신】

기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

【조선중앙통신】

나. 명절날과 저의 생일날에도 그들 가족은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들의 진정이 담긴 문화용품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었습니다.

올해 삼복철이 오자 김순근, 김정순 부부와 그의 아들 김지환 그리고 김순근동무와 함께 일하는 최학경동무가 저를 동림폭포로 데리고와서 시원한 덕수까지 맞게 하여주었습니다.

서늘한 덕수에서 들어왔으니 삼복의 무더위는 순간에 가서졌지만 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저의 생활은 이처럼 따뜻한 혈육의 정이 항상 넘쳐나옵니다.

신외주사 성남동 박정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방문단성원들은 흥원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

【조선중앙통신】

기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

【조선중앙통신】

나. 명절날과 저의 생일날에도 그들 가족은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들의 진정이 담긴 문화용품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었습니다.

올해 삼복철이 오자 김순근, 김정순 부부와 그의 아들 김지환 그리고 김순근동무와 함께 일하는 최학경동무가 저를 동림폭포로 데리고와서 시원한 덕수까지 맞게 하여주었습니다.

서늘한 덕수에서 들어왔으니 삼복의 무더위는 순간에 가서졌지만 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저의 생활은 이처럼 따뜻한 혈육의 정이 항상 넘쳐나옵니다.

신외주사 성남동 박정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방문단성원들은 흥원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

【조선중앙통신】

기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

【조선중앙통신】

나. 명절날과 저의 생일날에도 그들 가족은 언제나 저의 곁에 있었고 우리 집에는 그들의 진정이 담긴 문화용품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었습니다.

올해 삼복철이 오자 김순근, 김정순 부부와 그의 아들 김지환 그리고 김순근동무와 함께 일하는 최학경동무가 저를 동림폭포로 데리고와서 시원한 덕수까지 맞게 하여주었습니다.

서늘한 덕수에서 들어왔으니 삼복의 무더위는 순간에 가서졌지만 저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저의 생활은 이처럼 따뜻한 혈육의 정이 항상 넘쳐나옵니다.

신외주사 성남동 박정남

우리 나라 팀 일본팀을 다승, 준결승경기에 진출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 19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의 집권자가 아시아유류선수회의라는데서 우리를 결코든는 망할수 없는 정치적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하고있는것은 미국이고 《제재》요 뭐요 하면서 우리를 괴롭, 폐쇄시켜보려고 발악하고 《북의 진정한 변화》,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라 한다.》느니, 《북 주민의 인권과 삶의 고통》이니 뭐니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에 저해를 주는 언행부러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

【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의 집권자가 아시아유류선수회의라는데서 우리를 결코든는 망할수 없는 정치적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치게 하는 엄중한 망발이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하고있는것은 미국이고 《제재》요 뭐요 하면서 우리를 괴롭, 폐쇄시켜보려고 발악하고 《북의 진정한 변화》,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라 한다.》느니, 《북 주민의 인권과 삶의 고통》이니 뭐니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남자축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하고 승자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우리 팀은 조별리그 4조에 속하여 오만, 카타르, 이라크팀과 경기를 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16개

